위성사진으로 살펴보는 새만금 변천사 한적한 갯벌에서 교통·물류 요충지로

초기 개발사업 목적 '농업용지 확보'

1989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됐고, 1991년 새만금사업비 200억을 확보해 새만금 방조제가 착공되었다. 초기 새만금개발사업의 목적은 농업용지 확보였다.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완료

2006년 4월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돼 새만금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니게 되었다. 2007년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농지100% → 농지 72%, 비농지 28%)이 발표됐다.

산단 · 농업용지 등 내부매립 진행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했고, 2014년 새만금 기본계획(MP)이 변경되어 현재 계획과 같게 됐으며, 산업단지, 농업용지 및 방수제 공사 등 내부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도 명확히 볼 수 있다.

동서도로 개통 내부 첫 SOC 완공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내부 첫 SOC가 완공됐으며, 새만금남북도로, 새만금신항만 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향후, 새만금은 국제공항·항만·철도를 모두 갖춘 교통·물류의 요충지가 될 예정이다.

도내 여야 의원들, 전북예산 지키기 '온 힘'

호남과 동행하겠다던 국민의힘 새만금 예산 삭감 논란에
민주 김윤덕 의원 "표리부동" 비판 "정부안 잘 지켜낼 것"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에 설득… 삭감 발언한 의원 "철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 행태를 보여 전북도민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전북을 방문해 당리당략을 떠나 낙후된 호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고,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과 전북이 미래형 일자리 산업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호남의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는 지역"이라며 "장차 이 지역의 거점이 될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이 글로벌 자유무역도시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투자유치.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5일 개최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심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의힘 김모 의원의 경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사업 800억 삭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20억원 전액 삭감, 새만금간척사박물관소장품 10.9억원 전액 삭감, 새만금 노마드 축제 예산 1.8억원 전액 삭감 등 새만금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 요구했고,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은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비 2.89억원 전액 삭감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전북도민 앞에서는 새만금 현안 해결과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주요 사업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표리부동한 국민의힘은 전북도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와 전북도와 협의해 정부안을 잘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미 그 의견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태도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밤 급히 해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새만금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삭감 검토를 재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며, 필요성에 공감한 해당 의원들이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시한 100대 문제 사업에 포함돼있던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예산 삭감 의견에 대해서도 정운천 의원이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에 따라, 국민의힘 정책위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이 전북 지역을 방문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잘 조율해서 전북에 대한 국민의힘의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김제시 선정

민주 이원택 의원, 예산 12억7000만원 확보
지역 저소득층 영양 불균형 해소 기반 마련

취약계층에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김제시가 선정돼 사업 예산 12억7,000만원이 확보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5일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과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김제시가 선정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해 신선.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가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기반을 확장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농식품바우처를 12개월간 지원하며, 농식품바우처 전용 카드를 통해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협몰(온라인)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을 구매 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공모 지자체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지역푸드플랜·식생활교육과의 연계성 및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강원 평창군 ▲충북 괴산군 ▲충남 당진시·청양군 ▲전북 김제시 ▲전남 해남군 ▲경북 예천군 ▲경남 거제시·밀양시 등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취약계층의 식품 및 영양섭취량은 절대적 부족 상태로, 영양부족이 건강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농식품바우처의 지원 확대를 통해 계층 간의 영양 불균형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의정 소식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전문교육 추진

전주시의회가 5일 완주군 상관리조트에서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전문강사를 초빙,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폭력예방교육 등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역량강화 전문교육'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과 김명륜 젠더교육전문가그룹 청어람 대표를 초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와 건전한 성 윤리 정착을 위한 '폭력예방 통합교육'으로 진행됐다.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강의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관련 예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열거해가며 실질적인 감사 기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명륜 젠더교육전문가그룹 청어람 대표는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과 조직 내 건전한 성 윤리의식 정착을 위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통해 "직장내 건전한 성윤리의식 정착은 행복한 우리 삶을 영위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며,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했다. /김윤상 기자

"보은매립장 고화처리물,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적할 것"

완주군의회,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군과 협력, 예산 확보 나서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가 완주비봉 보은매립장 고화처리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적처리 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완주군의회는 이를 위해 보은매립장 고화물 이적 처리를 위한 매립시설 조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16일 감사원에 청구했던 공익감사 결과, 보은매립장 내 매립된 고화처리물의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적 처리하는 등의 방안마련 통보에 따라 이뤄져,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 이하 행정특위)는 5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비봉 보은매립장 고화처리물 이적처리에 대해 관리형 매립시설을 마련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개월이 소요되는 고화처리물 이적처리에 따른 용역을 실시키로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부지가 선정되면 이적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용역 주내용은 ▲2021년까지 고화처리물 이적처리를 위한 신규 매립지 선정 ▲고화처리물만 이적처리하는 방안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방안 등으로 다각적인 검토안을 내놨다.

특히 이과정 중 주민생존과 지역안위를 위협하고, 폐기물 매립장 이적처리와 관련해 지역내 갈등과 주민불안을 조장하는 행위, 이러한 절박한 분위기에 편승해 개인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파악해 엄단키로 했다.

또 이적처리에 따른 관련 예산확보는 지역 정치권, 특히 더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의 연대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더불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업체에 대한 소송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특히 군의회는 이적처리하는 방안과 현재 상태에서 보전하는 방안, 두 방법론을 놓고 주민 의견이 반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 전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적처리하는 방법이 최적이라는 의견이 일치됐다"며 주변의 떠도는 소문을 일축했다.

행정특위 서남용(라선거구 고산6개면) 위원장은 "현재 고화처리물 이적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군 집행부 및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논의 중에 있다"며 "그 하나의 방안으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와 환경부 설득에 나서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천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군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관리형 매립시설로의 안전한 이적처리로 군민의 생존권과 삶을 지킬 것이며.,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송지용 도의회 의장,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은 5일 역대 의장들을 초청해 도의회와 자치분권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갖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철규(4대), 허영근(6대), 유철갑(7대), 김병곤(8대), 김희수(8대), 김호서(9대), 김용화(9대), 양용모(10대) 등 8명의 역대 전북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송지용 의장은 "오늘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고 있는 밑바탕에는 선배 의원님들의 땀과 노력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늘리고, 지방의회 인사권을 확보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설립하는 등 지방의회와 전북도가 함께 발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직 의장들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전북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유호상 기자

완산선관위, 다문화가족 20여명 대상 민주시민교육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주시 다문화가족 20여명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및 모의 투·개표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다문화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의 이해 부족 및 언어장벽 등으로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다문화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과 투표편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 다문화가족은 물론 현재 국적취득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도 오늘 교육을 통해 유권자로서 투표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표 절차에 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 현장 소통 간담회 열어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찬영)는 최근 완주시니어클럽, 문화도시 조성센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를 방문,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 구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완주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 및 해당 지역구 의원, 관련 실과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완주시니어클럽'에서는 각 읍면과 시니어클럽이 수행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는 작년 말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 현황과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 및 최종심의 관련 사항을 청취했다.

최찬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소통 간담회가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